

전남 중부권

영산강 고수부지 유지관리권 지자체로 이관

나주시 관광산업 개발 박차

총 길이 49km... 시민·관광객위한 편의시설 조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이달 중 마무리 되는데로 영산강 고수부지 유지관리권이 해당 지자체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이를 활용한 각 지자체의 관광산업 개발이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이달 중 마무리 되는데로 영산강 고수부지 유지관리권이 해당 지자체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이를 활용한 각 지자체의 관광산업 개발이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활용해 어떤 관광상품을 개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갈지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나주시 김관영 문화체육관광과장은 "그동안 관리권이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이다 보니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이제는 체육시설과 관광자원으로 잘 개발해서 관광객유치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화예방·시력보호 '담양 블루베리' 수확. 담양군 봉산면 시설하우스에서 블루베리 수확이 한창이다. 블루베리는 미국 주간지 타임지에서 선정한 10대 '슈퍼푸드'로 노화예방과 시력 보호에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고 있다. <담양군 제공>

KTX 나주역 경유 촉구

14만명 서명부 20일 전달

나주시가 '호남고속철도(KTX)의 나주역 경유'를 위한 14만여명의 지지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한다. 나주시의 3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호남고속철 나주역경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상임대표 박종주·위원장 이하 비대위, 상임대표 박종주·위원장 이하 비대위, 상임대표 박종주·위원장 이하 비대위)는 20일 나주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진 뒤 배기운 국회의원(나주·화순)과 임성훈 나주시장을 비롯한 40여명의 대표단이 국회해양부와 국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방문해 14만여명의 지지자의 담기 서명부를 전달하기로 했다.

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 KTX 열차편으로 상경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지난달 23일부터 읍·면·동, 마을별로 서명운동을 전개한데 이어 나주역과 터미널, 나주목사고를 시장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물론 화순·완도 등 6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지의견을 결집해 왔다. 비대위는 ▲광주~나주는 기존선을 고속화하고, 나주~목포구간은 고속 신선으로 할 경우 무안공항 경유를 주장하는 전남도안보다 시간상 2분은 단축할 수 있어 '저속철'이 아닌 '고속철'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고 ▲비용면에서도 나주시 안은 2조100억원, 전남도안은 3조1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경제적인 면에서도 우위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csn@

강진 향토문화유산 5건 신규 지정

강진군은 향토문화유산 5건을 신규로 지정했다. 이번 신규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은 ▲강진을 남성리에 소재한 금서당 ▲도암면 만덕산 응혈암지 ▲울천초등학교에 위치한 독립만세비 ▲시문학과 기념관에 보관된 영랑시집과 박용철 전집 시집이다.

후 고 안향 김영렬 화백이 반파된 것을 보수해 작업실로 사용했다. 응혈암지는 백련사 제1대 원묘국사·제2대 정명국사·제3대 진정국사·제7대 진감국사 주석했던 유적으로 현재 터만 남아있다. 고려시대 민중운동인 '백련결사'를 주도했던 곳이다. 독립 만세비는 1945년 광복을 맞아 나라를 찾는 기쁨에 울천 면민들이 만든 기념비로 선조들의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을 체현할 수 있는 역사적 사료로 보존 관리할 방침이다. 영랑시집(1935년 11월 5일 발간)과 박용철 전집 시집(1935년 5월 5일

- 남성리 금서당
만덕산 응혈암지
울천초 독립만세비
영랑시집
박용철 전집 시집

발간)은 시문학과 기념관에 소장된 도서로, 지난 2009년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 문학분야 목록화 조사 사업 최종보고서 56번째와 73번째에 등록된 작품이다. 한편 강진군은 올해 5건의 신규 지정까지 포함해 총 47건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체험+휴양' 장성 산촌생태마을 조성 활기

장성군이 체험과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산촌생태마을을 조성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18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개관한 대곡 산촌 생태마을에 이어 북하면 신성리 남창마을 일대 '남창 산촌 생태마을'을 올해 안에 개관할 예정이며, 오는 2013년까지 서삼면 추암리 증암마을 일원에 '증암 산촌생태마을' 조성 계획을 하고 있다. '남창 산촌생태마을'은 사업비 14억원을 들여 부지 1535㎡에 체험관·전시판매장·공동작업장·천문대 등을 조성한다. '증암 산촌생태마을'은

부지 7934㎡에 전시판매장과 체험관 7동, 주차장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군은 최근 축령산 인근에 대곡 산촌생태마을을 개관, 축령산을 찾는 방문객과 마을 소득창출 부분에서 산촌생태마을의 본래 목적을 충족시키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산촌마을과 연계한 고구마 캐기와 딸기 따기, 임산물 채취 등 농·산촌 체험교육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산촌마을을 마을소득 증대와 산림경관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전 북

올 여름휴가는 전통공예 이색체험

정읍공예관, 7월20일부터 목판화인쇄놀이 등

정읍 전통공예관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7월 20일부터 40일 동안 칠보 물테마 유원지내 물테마 체험전시관에서 '제1회 전통공예 체험놀이 여름철 특별강좌'를 개설한다. 이번 강좌는 '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 어린이·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생활도자기와 목판화인쇄 체험놀이 등 추억만들기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된다. 전통공예관은 이번 강좌개설을 통해 누구나 전통문화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놀이문화로 승화시키고 상춘곡·동진강변 문화 등 정읍 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을 전통공예에 접목함으로써 지역의 관광문화자원을 널리 알리

외래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단위 참가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통공예 장인으로 구성된 강사진으로부터 전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참가자는 재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전통공예 강좌에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30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정읍 전통공예관에 접수하면 된다. 정읍 전통공예관 한남희 주무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을 방문한 가족들이 정읍의 여유로움과 이색체험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063-534-8228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새만금권 시·군 통합 강력 반발

김제시의회,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반대 결의안' 채택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의 새만금권 시·군 통합대상 결정에 대해 김제지역의 반대 여론이 거세다. 김제시의회(의장 김문철)는 18일 개편위의 새만금권 시·군 통합대상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성주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권 통합 반대결의안은 "최근 개편위의 새만금권 시·군 통합대상 결정은 김제시와 부안군의 여론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결의안은 "이미 육지화된 새만금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설정의 새로운 준거 마련으로 방조제 구간과 행정

구역을 연결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설정해야 하며, 국제적 관례와 본래의 역사성에 맞게 만경강과 동진강의 심연을 경계로 삼는 합리적인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새만금 행정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경계가 설정된 이후에 광역화 및 통합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통합논의가 새만금 지역 주도권 확보수단이 아닌 그동안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상호간의 대화와 통합을 통한 행정구역 우선 설정으로 주민간 갈등을 해소 후 통합 절차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채택된 결의안은 대령동과 국무동,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의장 및 각 정당 대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홍순진기자 hnews@

이에 앞서 김제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통합반대 추진위는 지난 12일 개편위를 방문해 새만금권 행정구역 통합 반대 여론과 편파적인 통합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합논의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시·군·구 통합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새만금권은 '대규모 국책 사업의 동일 권역에 포함된다'는 정부 통합 기준안에 따라 '통합 대상'에 포함됐다. '통합 대상' 지역은 해당 자치단체 및 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입법과정을 거쳐 통합을 추진하게 된다. /전북취재본부=홍순진기자 hnews@

단 신

군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군산시는 무주택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로 모집 공고일(2012년 1월 1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이어야 하며, 지원대상은 한

정읍, '조선왕조실록 이안 길을 찾아서' 체험

정읍문화원(원장 정창환)은 '정읍 소년 향토사 연구동아리' 체험 프로그램 일환으로 도내 중·고교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조선왕조실록 이안 길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420년 전 임진왜란 당시 정읍 선비들이 걸었던 길을 고지도를

김제 상수도요금 하반기부터 7.7% 인상

김제시 상수도요금이 올 하반기부터 7.7% 소폭 인상된다. 이번 요금인상은 7월(월) 지역과 민경·백산·금구지역은 8월 납기분부터, 기타 면 지역은 9월 납기분부터 인상 고지된다. 이번 인상으로 전체 평균요금

변산국립공원 외래종 제거 봉사자 모집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윤석)는 6월부터 9월까지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는 외래종 제거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변산반도사무소는 지난 2008년부터 돼지풀·서양 금혼초 등 외래종의 서식면적과 개체수 등을 파악해 매년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민규 자원보전 과장은 "소중한 자연자원 보전을 위한 외래종 제거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3-583-2054.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내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고창군은 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반기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과 도·소매업, 서비스업(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이 해당된다. 융자한도는 1인당 2000만원 이내이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가구는 3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융자기간은 1년 거치·2년 상환이다. 대출은 전복은행과 농업 중앙회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자는 신청자 개인의 담보, 보증서, 신용상태에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약정한 이자로 결정된다. 군은 대출이자에 대해 연 4%를 이차보전 해준다. 구비서류는 ▲읍·면에 비치된 신청서(읍·면장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에 등록된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영수증(사본)이다. 한편 '소상공인 운전자금'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지원과 대출이자 보전을 통한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44명에게 31억원의 지원했다. 문의 063-560-2352.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고창 명품수박 서울 나들이. 고창군은 최근 서울 롯데백화점 노원점에서 제3회 고창군 향토배기 명품수박 출시전을 개최했다. 이날 박형남씨가 재배한 수박이 경매가 26만원에 낙찰됐다. <고창군 제공>